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Problems in the Consumption Life of Household Over Family Life Cycle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홍 향 숙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Hyang Sook Hong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 이 기 춘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 : Kee Choon Rhee

목 차

- | | |
|---|--|
| <p>I. 問題의 提起</p> <p>II. 理論的 背景</p> <p>1. 家計의 消費生活問題</p> <p>2. 家族生活週期和 家計의 消費生活問題</p> <p>3. 研究問題 및 假說의 設定</p> <p>III. 研究方法 및 節次</p> <p>1. 調査道具의 作成</p> <p>2. 調査對象者 및 資料의 標準</p> <p>3. 資料의 分析方法</p> | <p>IV. 結果 및 論議</p> <p>1.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의 一般的 傾向</p> <p>2.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p> <p>3.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에 대한 重分類分析</p> <p>V. 結論 및 提言</p> <p>참고문헌</p>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consumption life of household over the family life cycle so that they would support to select the consumer education subjects and the establish the long-term household plan.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nair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included 562 homemakers living in Seoul.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distribution, Mean, Percentile, One-way Anova, Scheffé-test,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In the level of the problems in the consumption life of household, housing problem, durable

goods problem, health-medical problem and child education problem area were in the low level. Leisure problem and properties management problem area were in the high level.

2) The problems in the consumption life of household differed significantly over the family life cycle.

3) When controlling family monthly income and education level of husband was compared with not-controlling them, the influences of family life cycle on the problems in the consumption life were as follows.

(1) At housing problem area, the effect of the FLC was higher in controlling them than not-controlling them.

(2) At other problems, the effects of the FLC was lower or same in controlling them than not-controlling them.

I. 問題의 提起

현대사회에서 消費는 인간 스스로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음번의 생산과정에서 발휘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하거나 증가시키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해야한다. 만일 이 消費生活이 중단되면 국민경제는 스스로를 재생산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므로 소비생활은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資本主義 經濟社會에서 消費生活의 담당자는 家計로서 가계는 소득을 저축과 소비로 배분하며 또한 소비지출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消費行動의 주체이다. 이러한 가계는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해야한다.

그런데 오늘날 급속한 經濟成長과 産業의 발달로 수많은 상품들이 새로이 출현하고 기존의 상품들이 도태되는 現代市場狀況에서는 특정상품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조차도 힘들다. 아울러 상품의 구조가 점차 복잡해짐으로써 비전문인이 그 구조나 성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유사한 상품들의 相互比較가 또한 어렵다. 더우기 대부분의 시장이 情報面에서 불완전한(informationally imperfect) 상황이므로(Maynes & Assum 1982) 家計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知識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家計는 生活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 화폐, 시간 등과 같은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가족구성원은 현재 욕구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時間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 욕구는 강도에 있어서나 量的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家計는 消費生活의 知識, 情報의 不足, 資源의 不足, 욕구의 변화 및 증가로 인해 消費生活에 불만족스런 영역이 생겨 問題를 겪게 된다.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는 다음 두 가지 이유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첫번째 이유는 家計의 消費支出이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요소이며 이는 국민경제의 生産水準과 생산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家計의 消費生活에 問題발생은 국민경제에 負的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 이유로서, 家計의 消費生活에 있어 問題발생은 家計가 效率的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意味하며 이는 곧 가계의 복지를 저하시키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차원의 복지저하와 관련된다는 점이다. 家政學이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통한 家計福祉의 向上을 중요시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또한 사회의 복지나 질은 사회적 차원에서나 국민경제적 수준에서의 주도적인 정책수행만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통한 개별 家計의 차원에서도 달성된다는 점에서 家計의 效率的인 소비생활은 더 한층 중

요하다.

이와같이 국민경제와 가계복지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家計의 效率的 消費生活은 그 밑바탕이 되므로 이를 위해 우선 家計의 消費生活問題 규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오늘날은 내구재뿐만 아니라 일상 소비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商品의 구매도 家計의 소득 제약 조건하에서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이루어 지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消費者行動의 이론적 측면 및 실천적 측면에서 分析의 단위로서 家計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消費生活의 問題를 家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는 가계의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욕구의 변화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므로 본 研究에서는 消費生活의 問題를 家族生活週期和 관련해서 발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研究은 서울시에 있는 家計를 대상¹⁾으로 하여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를 규명하여 家計가 效率的이며 合理的으로 消費生活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消費生活知識 및 정보제공을 위한 消費者教育의 주제선정과 가계의 長期消費生活計劃指針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理論的 背景

1. 家計의 消費生活問題

家計는 家計生産과 消費生活을 통해 생활의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다. 오늘날 家計의 주요 생산활동 기능은 기업으로 이전되고 消費生活이 가계의 주요 기능이 되었다. 가계는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과 가족원의 복지를 위해 소득을 획득, 배분, 사용하는데 이것이 가계의 消費生活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家計는 이와같은 消費生活에 必要한 소득과 지식, 정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불만족스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消費生活問題라 한다.

즉, 다시말해 消費生活問題란 家族의 生活의 안정, 향상을 위하여 제한된 소득을 배분, 사용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족스런 혹은 불균형적인 상태를 말한다.

家計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득을 배분 사용하는 領域은 다양하므로 消費生活의 問題領域도 다양하다. Stampfl(1979)은 消費生活問題를 전형적인 시장문제라 명명하고 住宅에 관한 問題로서 첫번째 주택의 선정, 주택규모의 확대 및 축소를, 子女教育에 관한 問題로서 자녀양육과 비용간의 이해부족, 자녀의 대학학비문제를, 건강에 관한 문제로서 의료비문제, 와병시 지원, 건강보조기구 구매를 다루고 있으며 기타 보험, 신용구매에 관한 問題도 다루고 있다. Heck(1976)은 재정관리(financial activity)에서 消費生活和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역은 건강의료비문제, 자녀교육비문제, 보험·저축·투자문제, 내구재확보문제, 여가문제, 주택문제 등이다.

이와 같이 消費生活問題는 多次的의므로 본 研究에서는 선행연구와 면접을 통한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家計의 消費生活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6가지 영역의 문제 즉 住宅問題, 耐久財確保問題, 餘暇善用問題, 健康 및 醫療費問題, 財產管理 및 增殖問題, 子女教育費問題를 선정하여 消費生活問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住宅問題

住宅問題란 주택의 양적부족 질적불량으로부터의 불만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여러가지 제약으로 顯在化되지 못함으로써, 주거자가 계속 불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耐久財確保問題

耐久財確保問題란 가계가 효율적인 가정관리, 편리하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必要한 내구재를 현재 구비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그 耐久財購入 必要性이 증대되는 상태를 말한다.

3) 餘暇善用問題

餘暇란 업무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 의무를

註 1) 측정은 가계경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주부를 통해서 질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행한 연후에 개인의 자유의지로 제 행위-他 공리적 목적이 없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기쁨, 쾌감, 만족이 目的이 되는-를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이다(유혜경 1980).

餘暇善用問題란 他 공리적인 目的이 없이 個人이 자유의지로 기쁨, 쾌감, 만족이 목적이 되는 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狀態를 말한다.

4) 健康 및 醫療費問題

健康 및 醫療費問題란 가족원의 건강상태 및 건강한 生活을 위해 支出되는 費用의 부담이 커서 불만족스런 狀態를 말한다.

5)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란 가계가 안정과 미래의 향상된 生活을 위해서 가계의 財産을 管理하고 增殖시키고자 하는 정도가 큰 狀態를 말한다.

6) 子女教育費問題

子女教育費問題란 家計의 子女養育費중에서 子女教育費의 부담이 커 子女의 教育費面에 있어 불만족스런 혹은 불균형적인 狀態를 말한다. 子女教育費는 公式的 子女教育費와 非公式的 子女教育費로 나뉜다. 公式的 子女教育費란 子女의 學校教育과 관련된 費用을 말하며 非公式的 子女教育費란 子女의 특기교육, 장난감구입 등 학교교육비와 관계없이 子女教育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家族生活週기와 家計의 消費生活問題

1) 家族生活週기의 效用性 및 分類

家計의 消費生活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는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어느한 시점을 통해서 研究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는 맥락에서 연구하는 방법이다. 家計의 消費生活에 대한 연구는 어느 측면의 접근으로나 가계의 消費生活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나, 家計의 消費生活은 정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동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가계의 소비생활을 全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家族生活週기란 발달적 접근에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한 家計가 가족생활주기 가운데 처한 위치를 알면 所得水準, 消費者行動, 主婦의 結婚滿足度, 가족의 갈등, 그리고 父母와 子女關係등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인에 대해 전망할 수 있다(Duval 1977). 그러므로 가족생활주기는 가정생활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보다 효용성이 크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정생활의 변화로 인한 家族生活週기의 有用性에 따라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접근은 두가지 측면에서 행해져 왔다. 첫째는, 가족생활주기를 설정하는 작업에 대한 연구이고 둘째는, 가족생활주기 그 자체를 하나의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그것이 가계의 경제적변동, 저축형태 및 저축동기, 消費支出, 住宅消費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이다.

가족생활주기 변수의 유용성과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 하여 이루어진 종래의 연구경향을 종합해 볼 때 가족생활주기는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될 가족생활주기는 유영주(1984)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약간 수정하여 그 단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① 가족생활주기 1단계(형성기): 결혼으로부터 첫자녀의 출산 전까지.

② 가족생활주기 2단계(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자녀 출산으로부터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입학할때 까지.

③ 가족생활주기 3단계(국민학교기): 첫자녀가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시기

④ 가족생활주기 4단계(중·고등학교기): 첫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시기.

⑤ 가족생활주기 5단계(대학 및 자녀결혼기): 첫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결혼해서 독립생활을 하거나 또는 취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 가정에 살고 있는 시기.

⑥ 가족생활주기 6단계(노년기): 막내 자녀가 결혼한 이후 시기.

2) 家族生活週期²⁾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

① 신혼기의 消費生活問題

子女가 없는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뒤이은 보금자리 I 기에 비하여 재정적으로 풍족한 편이며 소득의 지출성향이 높다(Wells & Gubar 1957).

新婚期 家計는 제품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가족의 미래를 위한 長期的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支出을 줄이기 위하여 자기완성기술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서서비스를 구매하는 知識이 부족하므로 이를 습득하여야 한다(Stampfl 1979). 이들의 消費生活의 問題는 저축습관의 결여, 부부간의 소비의 우선순위의 차이, 충동구매, 구매형태의 변화, 주택의 잦은 이동 등을 들 수 있다(Stampfl 1979).

② 보금자리 I 기의 消費生活問題

보금자리 I 기는 子女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이동성의 저하, 취업주부의 경우 직장의 포기등 여러 이유로 말미암아 消費生活이 복잡하여 진다. 이 시기의 消費生活의 問題는 첫번째 주택의 선택, 신용구매의 초과, 이동성 문제, 자녀양육과 비용간의 이해부족(Stampfl 1979), 비상사태를 위한 저축부족,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부담(Heck 1976)등을 들 수 있다.

③ 보금자리 II 기의 消費生活問題

보금자리 II 기는 막내 자녀가 6세 이상인 家計인데, 이 단계의 消費生活의 問題로는 뜻하지 않은 비용의 지출이 많고 住宅의 유지·보수, 구매단위 선택의 곤란함 등을 들 수 있으며(Stampfl 1979), 일찍 집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 이 時期에 주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심한 빚을 질 수 있으며, 子女의 약기레슨, 수영 등의 특기교육의 비용부담이 크다(Heck 1976)는 것이다.

④ 보금자리 III 기의 消費生活問題

보금자리 III 기는 노부부와 청소년기에 달하거나 독립적인 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정을 떠날 준

비를 하고 있는 子女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기의 消費生活의 問題로는 자녀의 대학학비를 조달하는 것과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을 경우 의복에 지출되는 비용과 가족구성원의 개성과 취미가 다양해짐에 따른 여가활동의 비용부담(Stampfl 1979)과 자녀를 위한 내구재 구입부담(Heck 1976)이 크다는 것들을 들 수 있다.

⑤ 노부부기의 消費生活問題

노부부기의 消費生活의 問題로는 건강문제로 인한 의료비지출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것과 여가, 취미활동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Wells & Gubar 1957) 그리고 시장기술과 지식의 진부화(Stampfl 1979)등이 있다. 그러므로 消費者教育의 측면에서 의료기관이나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老人을 위한 공공자원 이용에 관한 情報가 전달되어야 한다.

3. 研究問題 및 假說의 設定

本 研究는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살펴보는데, 가계의 소비생활문제는 多次元的인 이므로 그 하위 영역을 住宅問題, 耐久財確保問題, 餘暇善用問題, 健康 및 醫療費問題, 財產管理 및 增殖問題, 子女教育費問題로 나누어서 分析한다.

本 研究에서 설정한 研究問題 및 假說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家計의 消費生活問題水準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家計의 消費生活問題水準은 家族生活週期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인가?

· 가설 2-1: 住宅問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2: 耐久財確保問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3: 健康 및 醫療費問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4: 餘暇善用問題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註 2) 이 단원에서 분류된 각 단계들은 Wells & Gubar(1966)에 의한 9개의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청년기 단계 제외되고 노부부 I 기, II 기, 고독생존기, 고독은퇴기를 노년기로 묶어 5단계로 고찰된 것이다. ① 신혼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② 보금자리 I 기: 막내자녀가 6세미만인 가족 ③ 보금자리 II 기: 막내자녀가 6세 이상인 가족 ④ 보금자리 III 기: 아직 부모에 의존하는 자녀가 있는老夫婦 ⑤ 노부부기: 가정에 子女가 없으며 노부부 혹은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사는 단계.

· 가설 2-5: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 가설 2-6: 子女教育費問題는 가족 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3] 주요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家庭生活週期가 가계의 消費生活問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道具의 作成

本 研究의 調査道具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消費生活問題 즉 住宅問題, 耐久財確保問題, 餘暇善用問題, 健康 및 醫療費問題,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 子女教育費問題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住宅問題尺度

성영애(1988), 임 정(1988), Stampfl(1979), Armstrong & Uhl(1971)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6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80이다.

2) 耐久財確保問題尺度

성영애(1988), 이용학(1985), 임 정(1988), Heck(1976), Stampfl(1979)의 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7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82이다.

3) 餘暇善用問題 尺度

성영애(1988), 이용학(1985), Landon & Locander(197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4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53이다.

4) 健康 및 醫療費問題尺度

임 정(1988), Stampfl(197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6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71이다.

5) 財産官理 및 增殖問題尺度

박재윤·조대경(1977), 조희금(1984), Stampfl

(1979)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6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60이다.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재산증식용 저축·투자량척도가 .60이고 재산관리 및 증식 필요성 문제척도는 .70으로 나타났다.

6) 子女教育費問題尺度

박세일(1982), 임 정(1988)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는데, 7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형 5점 척도로서 신뢰도계수는 .73이다. 하위영역별 신뢰도계수는 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척도가 .56이고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척도는 .73으로 나타났다.

2. 調査對象 및 資料의 標準

本 研究의 調査對象은 서울시에 거주하는主婦이다. 본 조사에 앞서 실시한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질문지를 작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가족생활주기, 남편의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총 7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611부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62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資料의 分析方法

資料의 분석은 평균, 백분율, 빈도분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적용하였다.

IV. 研究結果 및 論議

1.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의 一般的 傾向

조사대상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의 분포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볼 때 住宅問題水準이 보통인 가계가 31.0%로 가장 많고 주택문제수준이 아주 높은 가계는 6.4%로 적었다. 家計의 평균 住宅問題水準은 16.0으로서 일반적인 가계들의 住宅問題水準이 낮은 편임을 보여주었다.

耐久財確保問題水準은 보통인 가계가 33.1%로

表 1. 消費生活問題水準의 분포

소비생활문제 집단	주택문제		내구제 확보문제		건강 및 의료비문제		여가선용 문제		재산관리 및 중식문제		저축 · 투자양 의 필요성		재산관리 · 중식 의 필요성		자녀교육비 문제		공식적 교육비문제		비공식적 교육비문제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점수	백분율 (빈도)
하 위 집 단	6-10	15.5 (73)	7-11	7.9 (40)	6-10	11.5 (56)	4-6	12.4 (66)	6-10	3.6 (19)	2-3	15.1 (83)	4-6	1.9 (10)	7-11	14.9 (77)	2-3	17.1 (87)	5-8	28.7 (134)
중 하 위 집 단	11-15	24.8 (117)	12-17	29.9 (152)	11-15	35.3 (172)	7-9	41.6 (222)	11-15	12.6 (67)	4-5	42.2 (232)	7-9	9.0 (49)	12-17	44.9 (174)	4-5	35.7 (181)	9-12	37.5 (193)
중 위 집 단	16-20	31.0 (146)	18-23	33.1 (168)	16-20	35.8 (175)	10-13	38.3 (204)	16-20	36.9 (197)	6-7	29.5 (162)	10-13	32.1 (174)	18-23	34.0 (189)	6-7	34.6 (176)	13-16	25.7 (123)
중 상 위 집 단	21-25	22.3 (105)	24-29	17.1 (87)	21-25	15.0 (73)	14-17	6.6 (35)	21-25	39.3 (210)	8-9	12.2 (67)	14-17	48.3 (262)	24-30	6.0 (34)	8-9	11.8 (60)	17-20	7.5 (33)
상 위 집 단	26-30	6.4 (30)	30-35	12.0 (61)	26-30	2.5 (12)	18-20	1.1 (6)	26-30	7.7 (41)	10-11	1.1 (6)	18-20	8.7 (47)	31-35	0.2 (7)	10-11	0.8 (4)	21-25	0.6 (7)
계	100.0(471)		100.0(508)		100.0(488)		100.0(533)		100.0(534)		100.0(550)		100.0(542)		100.0(481)		100.0(508)		100.0(490)	
평균(X)	16.0		18.9		14.2		9.4		18.9		5.2		13.7		16.4		5.3		11.1	
표준편차	5.5		5.9		4.1		2.7		4.3		1.8		3.1		4.8		1.9		3.8	

가장 많고 耐久財確保問題水準이 아주 높은 家計는 12.0%로 적어 家計의 平均 耐久財確保問題水準은 18.9로서 일반적인 家計의 耐久財確保問題水準은 낮은 편임을 보여 주었다.

健康 및 醫療費問題水準은 문제수준이 보통인 家計가 35.8%로 가장 많고, 문제수준이 아주 높은 家計는 2.5%로 매우 적었다. 家計의 平均 健康 및 醫療費問題水準은 14.2로서 전반적인 調查對象 家計들의 健康 및 醫療費問題水準은 낮은 편임을 보여 주었다.

餘暇善用問題水準은 問題水準이 높은 家計가 41.6%로 가장 많고, 문제수준이 아주 낮은 家計는 1.1%로 매우 적어 家計의 平均 여가선용문제수준은 9.4로서 家計의 여가선용문제수준은 높은 편임을 보여 주었다.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水準은 문제수준이 높은 家計가 39.3%로 가장 많고,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수준이 아주 낮은 家計는 3.6%로 매우 적어 家計의 平均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수준은 18.9로서 일반적인 家計들의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수준은 높은 편임을 보여 주었다.

子女教育費問題水準은 문제수준이 낮은 家計가 44.9%로 가장 많고, 문제수준이 아주 높은 家計는 0.2%로 매우 적었다. 家計의 平均 자녀교육비문제수준은 16.4로서 전반적인 家計들의 자녀교육비문제수준은 낮은 편임을 보여 주었다.

2.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를 주택문제, 내구재확보문제, 건강 및 의료비문제, 여가선용문제,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 자녀교육비문제로 하위영역을 나누어서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一元分散分析(one way ANOVA)에 의하여 검증하고 가족생활주기의 단계간에 의미있는 차이유무는 $p < .05$ 수준에서 Scheffé-test에 의하여 검증하였다(표 2참고).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住宅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家計의 주택문제점수가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결과를 보면 가족생활주기 2단계·3단계·4단계·5단계에 속하는 家計와 6단계에 속하는 家計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 假說 2-1은 지지되었고, 이결과는 가족생활주기단계에서 앞단계에 속하는 家計가 후기단계에 속하는 家計보다 주택문제수준이 높다고 한 김혜선(1988), Wells & Gubar(1966), Stampfl(197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耐久財確保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 가족생활주기 2단계에 속하는 家計의 내구재확보문제 점수가 가장 높으며 6단계에 속하는 家計의 내구재확보문제 점수가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결과를 보면 家族生活週期 6단계에 속하는 家計가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에 속하는 家計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 假說 2-2가 지지됨을 나타낸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健康 및 醫療費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으며,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家計의 건강 및 의료비문제점수가 가장 높고, 1단계에 속하는 家計의 건강 및 의료비문제 점수가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결과를 보면, 가족생활주기 1단계·2단계에 속하는 家計와 3단계·4단계·5단계·6단계에 속하는 家計, 3단계·4단계·5단계에 속하는 家計와 6단계에 속하는 家計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假說 2-3이 지지되었고, 이결과는 노년기에 건강을 위한 의료비 支出이 많게 된다고 한 Wells & Gubar(1966), Stampfl(1979), 최은숙(1986)의 견해를 지지해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餘暇善用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家計가 餘暇善用問題를 많이 느끼고 1단계에 속하는 家計가 여가선용문제를 적게 느낀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家族生活週期 1단계·2단계에 속한 家計가 3단계·4단계·5단계·6단계에

註 3) 자녀교육비문제에서, FLC 1, 6단계는 자녀교육문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제외됨.

表 2.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의 平均 및 Scheffe-test

집 단 (빈도)	주택문제		내 구 제 확보문제		긴 강 및 의료비문제		여가선용 문 제		재산관리 및 중식문제		저축· 투자양 의 필요성		자녀교육비 문 제		공 식 적 교육비문제		비공식적 교육비문제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평균 점수 (빈도)	Scheffe- test	
FLC 1 단계	14.1 (19)	a	18.1 (31)	a	11.2 (27)	a	11.8 (27)	a	19.1 (40)	a	7.0 (40)	a	15.6 (40)	a	17.3 (71)	a	4.8 (70)	11.9 (70)	a
FLC 2 단계	17.7 (69)	b	21.1 (78)	a	12.8 (70)	a	9.9 (70)	a	20.4 (87)	a	6.0 (87)	a	15.3 (87)	a	17.8 (98)	a	5.2 (98)	13.5 (98)	b
FLC 3 단계	17.3 (95)	b	19.4 (94)	a	14.3 (93)	b	9.4 (93)	b	20.4 (103)	a	5.7 (103)	a	15.0 (103)	a	17.3 (139)	a	6.0 (140)	11.3 (140)	a
FLC 4 단계	16.9 (134)	b	19.0 (141)	a	13.5 (133)	b	9.4 (133)	b	19.1 (145)	a	5.2 (145)	ab	14.2 (145)	a	16.7 (118)	a	6.2 (117)	11.2 (117)	a
FLC 5 단계	15.7 (115)	b	19.9 (114)	a	14.9 (101)	b	8.9 (114)	b	19.1 (120)	a	5.4 (120)	ab	14.2 (120)	a	17.3 (139)	a	6.2 (117)	11.2 (117)	a
FLC 6 단계	7.6 (37)	c	11.4 (40)	b	18.9 (41)	c	8.7 (41)	b	11.0 (36)	b	3.5 (36)	b	8.1 (36)	b	16.7 (118)	a	6.2 (117)	11.2 (117)	a
계	(469)		(498)	(465)	(470)	(531)	(531)	(531)	(425)	(425)	(425)	(425)	(425)	(425)	(425)	(425)	(425)	(425)	(425)
F 값	26.87***		18.64***	20.50***	6.7***	53.64***	11.22***	32.42***	1.3	17.28***	2.77*								

***p<.001, *p<.05

속한 가계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假說 2-4가 지지됨을 나타낸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財産管理 및 增殖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가족생활주기의 앞단계에 속한 가계가 후기단계에 속한 가계보다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의 각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는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가계가 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에 속하는 가계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假說 2-5가 지지됨을 나타내며, 이는 첫자녀가 취학전인 時期에 家計의 재정적 책임의 무겁다고 한 Heck(1976)의 연구를 지지해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子女教育費問題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구성요소별로 보면 公式的 子女教育費는 $p < .01$ 수준에서, 非公式的 子女教育費는 $p < .05$ 수준에서 각각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公式的 자녀교육비문제점수는 가족생활주기 5단계에 속하는 가계가 가장 높으며, 2단계에 속하는 가계가 가장 낮았다. 한편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 점수는 가족생활주기 3단계에 속한 가계가 가장 높고, 5단계에 속한 가계가 가장 낮았다.

Scheffé-test 결과를 보면, 공식적 자녀교육비부담은 가족생활주기 2단계·3단계에 속하는 家計가 4단계·5단계에 속하는 가계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부담은 가족생활주기 3단계에 속하는 가계가 2단계·4단계·5단계에 속하는 家計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假說 2-6이 기각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子女教育費問題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家族生活週期에 따라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는 각 하위영역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3. 家計의 消費生活問題에 대한 重分類分析

家計의 사회·경제적지위를 통제했을 때 가족생활주기가 가계의 消費生活問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월평균 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covariates)로 가족생활주기를 독립변수로, 가계의 消費生活問題의 각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중분류분석(MCA :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1) 住宅問題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住宅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 참고).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효과(Eta)는 .46인데 통제했을 때 효과(Beta)는 .54로 다소 증가했으므로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住宅問題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Beta는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의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순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족생활주기 2단계에 속하는 가계의 주택문제점수가 전주기중 가장 높고 6단계에 속하는 가계의 주택문제점수가 가장 낮다. 그리고 채택된 세 변수는 住宅問題 分散의 27%를 설명해주고 있다.

2) 耐久財確保問題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耐久財確保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 참고).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미치는 효과(Eta)와 통제했을 때 효과(Beta)가 .38로서 같으므로, 통제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와 통제했을 때에 家族生活週期가 耐久財確保問題에 미치는 효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했을 때 가족생활주기별로 내구재확보문제점수가 가장 높은 시기는 가족생활주기 2단계이고, 가장 낮은 시기는 6단계이다. 채택된 세 변수는 내구재확보문제 분산의 15%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健康 및 醫療費問題

통제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健康 및 醫療費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表 3 참고).

表 3.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 통제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消費生活問題 분산분석

구 분	주택문제	내구재 확보 문제	건강 및 의료비 문제	여가선용 문제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	자녀교육비 문제	공식적자녀교육비문제영역		비공식적자녀교육비문제영역	
							F값	문제	F값	문제
통제변수	6.70***	3.59*	9.26***	19.69***	23.27***	0.48	12.83***	4.33*	F값	
월평균가계소득	13.40***	0.77	0.81	7.69**	11.29***	0.09	12.23***	1.55	F값	
남편의교육수준	2.29	3.72	17.63***	15.60***	15.86***	0.95	3.46	3.94*	F값	
독립변수	27.68***	11.44***	12.87***	6.80***	23.50***	1.81	13.13***	8.49***	F값	

***P<.001 **P<.01 *P<.05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健康 및 醫療費問題점수는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가장 높고 1단계에 가장 낮다. 채택된 세 변수는 건강 및 의료비문제 분산의 18%를 설명해주고 있다.

4) 餘暇善用問題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餘暇善用問題는 p<.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表 3에 나타났다.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했을때 家族生活問題에 따라 餘暇善用問題가 높은 시기는

表 4.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 통제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택문제 중분류분석
총평균=15.83 R²=.27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Eta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1단계(17)	-2.24	- 1.33
	2단계(69)	1.86	1.87
	3단계(84)	1.07	1.26
	4단계(118)	0.85	0.86
	5단계(95)	-0.42	- 0.26
	6단계(28)	-8.58	-10.03
		.38	.38

表 5.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교육수준 통제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내구재확보문제 중분류분석
총평균=18.88 R²=.15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Eta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1단계(24)	-1.79	-1.67
	2단계(67)	2.14	2.21
	3단계(48)	0.38	0.38
	4단계(112)	0.48	0.47
	5단계(80)	0.31	0.26
	6단계(28)	-7.45	-7.52
		.38	.38

表 6.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통제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건강 및 의료비문제 중분류분석
총평균=14.06 R²=.18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dev'n Eta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1단계(24)	-2.73	-2.61
	2단계(67)	-1.27	-1.22
	3단계(78)	0.26	0.27
	4단계(118)	-0.68	-0.69
	5단계(80)	0.70	0.67
	6단계(28)	5.37	5.24
		.42	.41

表 7.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통제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여가선용문제 중분류분석
총평균=9.59 R²=0.16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dev'n Eta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1단계(24)	2.74	2.48
	2단계(67)	0.33	0.30
	3단계(78)	-0.18	-0.28
	4단계(112)	-0.09	-0.10
	5단계(80)	-0.55	-0.63
	6단계(28)	-0.70	0.15
		.31	.28

Beta점수가 가장 낮은 가족생활주기 5단계이고, 가장 낮은 시기는 Beta점수가 가장 높은 가족생활주기 1 단계이다. 채택된 세 변수는 여가선용문제 분산의 16%를 설명해주고 있다.

5) 財産管理 및 増殖問題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財産管理 및 増殖問題는 p<.001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表 3에 나타나있다.

통제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때 미치는 효과(Eta)는 .53인데, 통제했을때 효과(Beta)는 .51로서 아주

약간 감소했다.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財産管理 및 増殖問題점수는 家族生活週期 2단계에 속한 가계에서 가장 높고, 6단계에 속한 가계에서 가장 낮다. 채택된 세 변수는 財産管理 및 増殖問題 分散의 30%를 설명해주고 있다.

6) 子女教育費問題

자녀교육비문제는 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와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로 구성되므로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家族生活週기에 따른 公式的 子女教育費問題는 p<.001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表 3에 나타났다.

表 8.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통제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재산관리 및 증식문제 중분류 분석
총평균=19.01 R²=.30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dev'n Eta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1단계(24)	0.49	0.57
	2단계(67)	1.52	1.62
	3단계(78)	1.11	1.06
	4단계(112)	0.18	0.15
	5단계(80)	-0.13	-0.27
	6단계(28)	-7.51	-7.15
		.53	.51

表 9.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통제시 가족 생활주기에 따른 공식적자녀교육비문제 중분류 분석
총평균=5.01 R²=0.15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dev'n Eta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2단계(71)	-0.72	-0.79
	3단계(88)	-0.40	-0.39
	4단계(121)	0.32	0.30
	5단계(100)	0.48	0.53
		.29	.31

表 10. 월평균가계소득과 남편의 교육수준통제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비공식적자녀교육비문제 중분류분석
총평균=11.74 R²=0.084

변 수	집 단 (빈도)	unadjusted dev'n Eta	adjusted for independents + covariates dev'n Beta
가족생활주기	2단계(71)	0.75	0.78
	3단계(88)	1.16	1.13
	4단계(121)	0.32	0.29
	5단계(100)	0.17	1.20
		.25	.25

통제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때 미치는 효과(Eta)는 .29인데 통제했을때 미치는 효과(Beta)는 .31로 다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公式의 子女教育費問題에 대한 家族生活週期の 효과가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점수는 가족생활주기 2단계 · 3단계 때 평균이하이나, 4단계 · 5단계 때 평균이상의 교육비문제점수를 나타내면서 2단계부터 점증하여 5단계에 가장 높다. 그리고 채택된 세 변수는 公式의 子女教育費問題 分散의 15%를 설명해 준다.

또한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非公式的 子女教育費問題는 $p < .001$ 수준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表 3에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통제했을때 非公式的 子女教育費問題 점수는 대학교육기에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민학교기이다. 그리고 채택된 세 변수는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 분산의 8%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消費生活問題가 家族生活週期에 따라 다르며,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총평균으로부터의 순수한 변이를 보여주었다.

V. 結論 및 提言

가계의 消費生活問題水準은 중간점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인데 아주 낮은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家計의 消費生活問題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계의 消費生活에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해 주는 消費

者教育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消費生活問題領域중 餘暇善用問題와 財產管理 및 增殖問題水準이 높은 편이므로 이 영역에 대한 知識 및 情報제공이 집중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消費生活問題를 각 하위단계별로 보면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가계를 제외한 모든 단계의 가계가 財產管理 및 增殖問題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관리 및 증식에 관한 지식 및 정보제공은 거의 모든 가계에 필요하다. 가족생활주기 2단계에 속하는 가계는 주택문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족생활주기 3단계에 속하는 가계는 자녀교육비문제중 비공식적 자녀교육비문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족생활주기 5단계에 속한 가계는 子女教育費問題중 公式的 子女教育費問題수준이 높은 것으로, 가족생활주기 6단계에 속하는 가계는 기타 단계들에 속한 가계보다 건강 및 의료비문제 수준과 여가선용문제 수준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 단계별로 부각되는 가계의 消費生活問題領域에 초점을 두어 가계가 필요로 하는 消費生活知識 및 情報를 消費者教育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가계가 家族生活週期段階別로 부각되는 消費生活問題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家計의 長期消費生活計劃指針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本研究의 제한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課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家族生活週期변수는 시간의 진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종단분석법을 사용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종단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無作爲標本推出을 하지 못하였고, 서울시에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측정은 주부를 통해서 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서울이외에 있는 가계로 표집대상을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消費生活問題水準을 측정하는 연구도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도구를 세련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1) 김혜선 :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주택소비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2) 박세일 : 우리나라 교육투자 수익률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 4 권 2호 1982
- 3) 박재윤 · 조대경 : 한국인의 저축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보고 I.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77
- 4) 성영애 : 소비자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교육에 관한 요구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8
- 5)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 111-129, 1984
- 6) 유혜경 : 여가교육에 관한 일 연구-서울소재대학생의 여가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0
- 7) 이용학 :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85
- 8) 임 정 : 주부의 가계복지인지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8
- 9) 조희금 :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형태분석-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 권 제 1 호 : 57-66, 1984
- 10) 최은숙 : 가계의 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6
- 11) Armstrong J and JN Uhl : *Surveys of consumer education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63, No 7 : 524-530, 1984*
- 12) Deacon Ruth E and Francille M Firebaugh : *Family resources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75*
- 13) Duval EM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B Lippincott 1977*
- 14) Heck, Ramona : *Family activity in the family life cycle stages. Purdue Univ 1976*
- 15) Landon LE, JR and WB Locander : *Family life cycle and leisure behavior research.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6 : 133-138, 1979*
- 16) Lancing JB and L Kish : *Family life cycle as independ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2, No 5 : 512-519, 1957*
- 17) Maynes ES and T Assum : *Informationally imperfect consumer markets : empirical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6 : 62-87, 1982*
- 18) Reynolds Fred D and William D Wells : *Consumer behavior, Needham, Harper and Streers Advertising Inc. : mcGrow-Hill Book Company 1977*
- 19) Stampfl RW : *Family research : consumer education needs in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Home Economics(spring) : 22-27, 1979*
- 20) Wells WD and G Gubar : *Life cycle concept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3, No 3, 1957*
- 21) Wells WD and G Gubar : *Behavioral influences and buying patterns by family life cycle stag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Nov) : 355-363, 1966*